

# 동상





## 미래의 내가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방법



강수안 | 제주 아라초등학교 6학년

내가 사는 제주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곳이다. 우뚝 솟은 한라산, 개성을 뽐내는 오름, 신비로운 용암동굴과 지질공원, 울창한 숲, 정겨운 돌담, 그리고 섬을 둘러싼 바다……. 이런 제주의 매력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늘 보는 풍경이지만, 언제 보아도 가슴이 뛰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 뒤에는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모습이 숨겨져 있다. 한라산이나 오름을 오르다가도 숲길을 거닐다가도, 바닷가의 바위 틈새에도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가 천지다. 테이크아웃 음료잔, 페트병과 캔, 아이스크림 막대, 과자봉지부터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다버린 생활용품, 공사 자재들, 산책하던 반려동물의 배설물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내가 가본 다른 곳도 쓰레기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곳도 제주만큼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 있지는 않았다. 제주도는 돌이

많고 섬 지역이므로 쓰레기 매립도 어렵다. 쓰레기 매립지는 이미 과포화 상태를 한참 넘어섰다는 기사도 보았다. 매일 같이 넘쳐나는 분리수거장의 쓰레기도 나는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지구를 걱정하지 않는 어른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오늘도 골목에서 앞서 가던 차의 창문이 열리더니 쓰레기를 밖으로 던지는 것을 보았다. 운전자가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길에 쓰레기를 당당히 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본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모든 사람이, 아니 모든 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모두가 자연의 주인이고 모두가 아끼고 가꾸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만일 내가 제주시의 시장이 된다면 나는 제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가장 먼저 쓰레기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다. 우선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할 것이다. 어린이집부터 학교, 노인정까지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것이다. 함부로 버린 쓰레기가 지구를 오염시키고 다시 본인에게 돌아오는 과정을 온 제주 시민에게 알려 ‘쓰레기 없는 제주’로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크게 물을 것이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싫어하지 않게 쓰레기통을 더 많이 설치하고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께 더 많은 월급을 드리고 싶다. 또 분리수거 후 재활용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제주시를 운영하고 싶다. 봉사를 원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무엇보다 환경보호 활동을 부탁할 것이고, 쓰레기 매립이나 압축처리 등 쓰레기 처리 문제에 세금 활용 비율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동식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여 생물 다양성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

할 것이다. 녹지를 가꾸고 보호하며, 길고양이나 들개들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 관리에 힘쓰고 유기동물 입양 등을 시에서 관리하여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 등 모든 생명이 존중되는 제주시를 만들고 싶다. 깨끗한 환경에서 서로를 배려하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생물의 다양성이 지켜질 것이다. 또한 월령리 선인장 마을, 위미리 동백 마을처럼 각각의 마을마다 대표할 수 있는 동식물을 정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제주 전역에서 동물과 식물이 사랑받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나는 우리나라, 우리 국토를 사랑한다. 우리 국토는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모두모두 보호해야 하지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제주도를 가꾸는 일부터 시작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쓰레기를 잘 줍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동식물을 잘 보살펴줄 것이다. 중학생이 되면 친구들과 바다 주변 쓰레기 줍기와 유기동물 돌보기 자원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생각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 나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